

부정문을 가려잡는 '는' 결합 부사어 연구

한길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국어학 전공

hankil@kangwon.ac.kr

- I. 머리말
- II. 부정문만 가려잡는 '는' 결합 부사어
- III. 주로 부정문을 가려잡는 '는' 결합 부사어
- IV. 맺음말

I. 머리말

이 글에서는 긍정문이나 부정문을 가리지 않고 수식어로 쓰일 수 있는 일부 부사에 보조사 ‘는’이 결합되어 문장에서 수식어로 쓰이면서 부정문만 가려잡는 부사어를 선정하여 이들의 통사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보조사 ‘는’의 여러 용법 중 하나로, ‘는’이 긍정문이나 부정문을 가리지 않고 수식어로 쓰일 수 있는 일부 부사에 덧붙여 부정문만 가려잡거나 주로 부정문을 가려잡는 기능을 가지게 한다.¹⁾ 예컨대 ‘다시’는 (1)과 같이 긍정문이나 부정문을 가리지 않고 수식어로 쓰이는 부사에 해당한다.

- (1) ㄱ. 철수는 순이를 **다시** 만났다.
 ㄴ. 철수는 순이를 **다시** 만나지 않았다.

(1)에서 ‘다시’ 뒤에 보조사 ‘는’이 덧붙으면 (2)와 같이 긍정문인 ㄱ은 부적격한 문장이 되고 부정문인 ㄴ은 적격한 문장이 된다.

- (2) ㄱ. *철수는 순이를 **다시**는 만났다.
 ㄴ. 철수는 순이를 **다시**는 만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다시’는 긍정문이나 부정문을 가리지 않고 수식어로 쓰이지만, ‘다시’는 부정문만 가려잡아 수식어로 쓰이는데, 그 원인은 ‘는’ 때문이다.

모든 부사에 보조사 ‘는’이 결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²⁾ ‘는’이 결합될 수 있는 부사는 일부분이며, ‘는’이 결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부정문에서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부사 ‘조금’은 긍정문이나 부정문을 가리지 않고 수식어로 쓰일 수 있어 부정문을 가려잡는 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보조사 ‘도’도 일부 부사나 부사 이외의 단어, 어절에 결합되어 부정문만 가려잡는다.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한길, 「부정문을 가려잡는 ‘도’ 결합 부사어 연구」, 『인문과학 연구』 제46집(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b), 147-171쪽.

2) 이를테면, ‘이주’는 긍정문이건 부정문이건 가리지 않고 수식어로 쓰일 수 있지만 ‘는’이 결합되면 부적격한 문장이 된다.

여기서 서울이 **이주** 멀다. → *여기서 서울이 **이주는** 멀다.

여기서 서울이 **이주** 멀지 않다. → *여기서 서울이 **이주는** 멀지 않다.

‘조금’에는 ‘는’이 결합될 수 있지만 ‘조금은’이 부정문에서만 수식어로 쓰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문에서도 수식어로 쓰일 수 있어 부정문을 가려잡는 부사어에 해당되지 않는다.

- (3) ㄱ. 철수가 술을 **조금은** 마신다.
- ㄴ. 철수가 술을 **조금은** 마시지 **않**는다.

따라서 ‘조금’에 ‘는’이 결합되어 문장에서 부사어로 쓰이더라도 긍정문에서도 수식어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다시’에 ‘는’이 결합되는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다시’는과 마찬가지로 ‘는’이 덧붙여 부정문만 가려잡는 것으로는 ‘더는’, ‘일부러는’, ‘다는’, ‘그냥은’ 등이 있고, 주로 부정문을 가려잡는 것으로는 ‘자주는’, ‘많이는’, ‘멀리는’ 등이 있다. 이 글에서는 이들 부사어가 긍정문이건 부정문이건 가리지 않고 수식어로 쓰일 수 있는 부사에 보조사 ‘는’이 덧붙여 부정문을 가려잡는 부사어로 쓰임을 밝히고, 이들 부사어의 통사적 특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 글의 주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논의로는, 문장 구성이나 문법 범주에 영향을 미치는 부사의 통사적 특성에 관하여 개략적인 언급을 한 김택구(1984)를 비롯하여, 서상규(1984), 손남익(1995), 임유중(1999), 서정수(2005) 등을 들 수 있다. 통사 부사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에 관하여 논의한 연구로는 한길(2012, 2013, 2014, 2015a, 2015b, 2016)을 들 수 있다.³⁾ 특히 한길(2015b)에서는 부사 중에 ‘도’가 결합되어 부정문만 가려잡는 부사어의 통사적 특성을 규명한 바 있다.

3) 김택구, 「우리말 부사어의 통어 기능」, 『두메 박지홍 선생 회갑기념논문집』(1984), 63-86쪽; 서상규, 「부사의 통사적 기능과 부정의 해석」, 『한글』 186(한글학회, 1984), 73-113쪽; 손남익, 「국어 부사의 수식 대상」, 『한국어학』 제4집(한국어학회, 1996), 47-66쪽; 임유중, 『한국어 부사 연구』(한국문화사, 1999); 서정수, 『한국어의 부사』(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한길, 「정도부사 ‘훨씬’, ‘가장’, ‘더/덜’의 용법」, 『인문과학연구』 제35집(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184-205쪽; 한길, 「보충어를 요구하는 통사 부사의 용법」, 『인문과학연구』 제39집(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224-249쪽; 한길, 『우리말 어찌씨의 짜임새 연구』(역락, 2014); 한길, 「문장 구성을 제약하는 통사 부사의 용법」, 『국어학과 국어교육학』(채륜, 2015a), 205-232쪽; 한길, 앞의 논문(2015b), 147-171쪽; 한길, 「부정문을 가려잡는 필수 부사의 통사적 특성」, 『정신문화연구』 제143호(한국학중앙연구원, 2016), 153-178쪽.

II. 부정문만 가려잡는 ‘는’ 결합 부사어

대다수의 부사는 수식받는 말에 의미적으로 제한을 가하는 역할을 할 뿐이고, 문장 구성과 문법 범주에 통사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에 해당하는 부사를 단순 부사라고 하기로 한다.⁴⁾ 일부 부사는 문장 구성이나 문법 범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이런 부사를 통사 부사라고 한 바 있다.⁵⁾

본디 통사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 부사이지만 보조사 ‘는’이 결합하여 문장에서 부사어로 쓰이면서 문법 범주 중 부정법에 영향을 미쳐 부정문만 가려잡는 부사로는 ‘다시’와 ‘더’, ‘일부러’, ‘다’, ‘그냥’ 등이 있다. 곧 이들 부사는 긍정문이건 부정문이건 가리지 않고 수식어로 쓰일 수 있지만, ‘는’과 결합함으로써 부정문에서만 쓰이는 통사적 특성을 보인다.

1. 다시는⁶⁾

부사 ‘다시’는 문장 구성이나 문법 범주에 제약을 가하지 않고 단지 피수식어를 의미적으로 한정하는 단순 부사로, (4)와 같이 부정문뿐만 아니라 긍정문에서도 수식어로 쓰일 수 있다.

- (4) ㄱ. 그는 동생을 **다시** 만났다.
 ㄴ. 그는 동생을 **다시 만나지 않았다**.

그러나 ‘다시’⁷⁾에 보조사 ‘는’이 결합된 ‘다시는’은 단순히 ‘다시+는’의 의미가 아니라 ‘뒤에 더는, 이후에 결코’의 뜻을 나타내어 ‘다시’와 차이를 보인다. 또한 ‘다시는’은 용법에서도 ‘다시’와 차이를 보인다. ‘다시는’은

4) 부사의 기능에 따라, 피수식어를 의미적으로 한정하는 데 국한하는 부사를 단순 부사, 문장 구성이나 문법 범주에 제약을 가하는 부사를 통사 부사, 문장 밖까지 영향을 미치는 부사를 화용 부사라고 하기로 한다.
5) 통사 부사란 용어는 한길, 앞의 논문(2013), 224-249쪽에서 사용하였으며, 통사 부사의 특성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는 한길, 앞의 책(2014), 28-40쪽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6) 구어체에서는 주로 준말 ‘다신’으로 실현된다.
7) ‘다시’에 덧붙을 수 있는 조사는 ‘는’ 이외는 없다. ‘다시는’을 부사로 처리하면 ‘다시’에 붙는 조사는 없게 된다.

‘다시’와 ‘는’이 결합하여 한 몸처럼 굳어져 ‘다시’와 달리 부정문에서만 수식어로 쓰이는 특성을 보인다. 곧 (5)에서 ‘다시’는 긍정문에서 수식어로 쓰인 ㄱ은 부적격한 문장이 되어 ‘다시’는 부정문만 가려잡음을 알 수 있다.

- (5) ㄱ. *그는 동생을 다시는 만났다.
 ㄴ. 그는 동생을 다시는 만나지 않았다.

‘다시’에는 ‘는’ 이외의 다른 조사가 덧붙을 수 없고⁸⁾, ‘다시’와 ‘는’ 사이에 다른 어떤 요소도 끼어들 수 없기 때문에 ‘다시’는 부사 ‘다시’와 보조사 ‘는’이 어울려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다시’ 자체를 한 단어로 처리할 수도 있다. 곧 ‘다시’와 ‘는’이 각각 본디의 뜻과 기능을 유지하지 않고 달라졌기 때문에 결합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합성부사로 간주할 수도 있다.⁹⁾ 그러나 일부 부사에 ‘는’이 결합하여 ‘다시’와 같이 본디의 의미와 용법에서 전환되어 쓰이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다시’를 합성부사에 포함시키지 않고, 부사 ‘다시’에 조사 ‘는’이 어울린 부정문을 가려잡는 부사어로 처리하기로 한다.

‘다시’는 단순 부정문이나 능력 부정문을 가려잡는 부사어에 해당한다. ‘다시’는 의항법에 제약이 없어 명령문이나 청유문에서는 ‘-지 말’을 가려잡는다.

- (6) ㄱ. 나는 그분을 다시는 만나지 않았다.
 ㄴ. 나는 그런 음식을 다시는 먹지 못했다.
 ㄷ. 그런 생각을 다시는 하지 말자.
 ㄹ. 거짓말을 다시는 하지 마라.

(6)의 긍정문에 해당하는 (7)이 부적격한 문장이 되는 것으로 보아 ‘다시’는 부정문에서만 수식어로 쓰이고 긍정문에서는 수식어로 쓰이지 않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8) ‘다시’에는 ‘강조의 뜻을 더하는 파생접미사 ‘-금’이 결합되어 파생부사 ‘다시금’이 만들어졌다. ‘다시금’도 ‘다시’와 같은 용법으로 쓰인다.
 9) 대다수 사전류에는 ‘다시’는 부사로 올라 있지 않지만, 한글학회 편, 『우리말큰사전』(어문과, 1992)에는 “부정하는 말과 함께 쓰여, ‘그 밖에 더’의 뜻을 지닌 부사로 올라 있다.

- (7) ㄱ. *나는 그분을 **다시는** 만났다.
 ㄴ. *나는 그런 음식을 **다시는** 먹었다.
 ㄷ. *그런 생각을 **다시는** 하자.
 ㄹ. *거짓말을 **다시는** 해라.

(7)에서 '다시는' 대신에 '다시'가 수식어로 쓰이면 적격한 문장이 되지만, '다시는'이 수식어로 쓰여 부적격한 문장이 된 점으로 미루어 '다시는'은 긍정문은 가려잡지 않고 부정문만 가려잡음이 확인된다. '다시는'이 이런 통사적 제약을 일으키는 요인은 바로 '는'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다시는'은 부정문만 가려잡지만, '는'이 제거되면 '다시'의 본유적 용법으로 돌아가 긍정문이건 부정문이건 가리지 않고 수식어로 쓰이기 때문이다.

'다시는'이 (6)과 같이 부정문만 가려잡는 것은 확실하지만, '다시는'이 삭제되더라도 문장의 적격성에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는'은 문장 구성의 필수 요소는 아니다. 곧 '다시는'이 수식어로 쓰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정문이어야 하는 제약이 따르지만, 부정문을 구성하는 데 필수 요소는 아니다. 또한 '다시는'이 삭제되면 '다시는'의 의미만 덜어질 뿐 문장의 의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필수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¹⁰⁾

'다시는'은 부정어 용언 중 '아니다', '없다', '모르다'를 가려잡는다. '다시는'이 부정문만 가려잡기 때문에 (8)에 대립되는 긍정문은 당연히 부적격한 문장이 된다.

- (8) ㄱ. 사람으로서 **다시는** 할 일이 **아니다**.
 ㄴ. 이런 기회는 **다시는** **없다**.
 ㄷ. 이번 일에 대해서 나는 **다시는** **모른다**.

'다시는'은 부정문에서 피수식어를 의미적으로 한정할 뿐이며, 삭제되더라도 '다시는'의 의미만 제거될 뿐 문장의 의미나 적격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시는'이 수식어로 쓰인 (6)과 (8)에서 '다시는'이 삭제되더라도 적격한 문장이 됨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다시는'은 부사 '다시'와 보조사 '는'이 결합과정을 거쳐 생산된 합성부사로 볼 수 있는 근거들이 있지만, 이 글에서는

10) 한길, 앞의 책(2016), 181-183쪽에서 살핀 바와 같이, 부정문을 가려잡는 '여간'은 문장에서 삭제되면 삭제 전과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문장 구성의 필수 요소이다.

부사 '다시'에 조사 '는'이 어울려 부정문을 가려잡는 부사어로 보았다. '다시는'은 문장에서 수식어로 쓰여 단순 부정문이나 능력 부정문을 가려잡고, 명령문이나 청유문에서는 '-지 말'을 가려잡는 통사적 특성을 지닌다. '다시는'은 부정문만 가려잡는 통사적 특성을 지니지만 문장에서 삭제되더라도 문장의 적격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문장 구성의 필수 요소는 아니다.

2. 더는¹¹⁾

부사 '더'도 문장 구성이나 문법 범주에 제약을 가하지 않고 단지 피수식어를 의미적으로 한정하는 단순 부사로, (9)와 같이 부정문뿐만 아니라 긍정문에서도 수식어로 쓰일 수 있다.

- (9) ㄱ. 비행기가 기차보다 **더** 빠르다.
 ㄴ. 비행기가 기차보다 **더** 빠르지 않다.

(9)에서 '더'에 보조사 '는'이 결합되면 부정문인 ㄴ은 적격한 문장이 되지만 긍정문인 ㄱ은 부적격한 문장이 됨을 (1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10) ㄱ. *비행기가 기차보다 **더는** 빠르다.
 ㄴ. 비행기가 기차보다 **더는** 빠르지 않다.

따라서 '더'는 단순 부사이지만 '는'이 결합한 '다시는'은 부정문을 가려잡는 통사 부사어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다시는'과 마찬가지로 '더'도 부사 '더'에 보조사 '는'이 덧붙여 결합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합성부사로 볼 수 있다.¹²⁾ 단지 '더+는'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는' 자체가 하나의 부사로 굳어져 부정문에서만

11) '더'에 덧붙을 수 있는 조사로는 '는' 이외에 '도'가 있다. '더도'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등 특수한 경우의 부정문에서만 쓰이는 제약이 있다. 구어체에서 '더는'은 준말 '덜'으로 실현되기도 한다.

12) '더는'이 부사로 올라 있는 사전류는 없다. '다시는'이 부사로 올라 있는 한글학회 편, 『우리말큰사전』(어문각, 1992)에도 '더는'은 부사로 올라 있지 않다.

수식어로 쓰이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더’는 부정문뿐만 아니라 긍정문에서도 수식어로 쓰일 수 있지만, ‘더’에 보조사 ‘는’이 덧붙여 부정문만 가려잡기 때문에 ‘더는’은 부정문을 가려잡는 부사로 볼 수도 있다. 의미적으로도 ‘더는’은 ‘더+는’의 단순 의미 합계가 아니라 ‘이 이상 결코’의 뜻을 나타내어 ‘더’와 차이를 보인다. 용법에서도 ‘더’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더는’ 자체를 한 단어로 처리하되, 부사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므로 부사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 글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다시는’에서와 같은 이유로 부사 ‘더’에 조사 ‘는’이 어울려 부정문을 가려잡는 부사어로 처리하기로 한다.

‘더는’은 단순 부정문이나 능력 부정문을 가려잡는 부사어에 해당한다. ‘더는’은 의향법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명령문이나 청유문에서는 ‘-지 말’을 가려잡는다.

- (11) 가. 나는 그곳에 **더는** 가지 않겠다.
 나. 나는 그분을 **더는** 만나지 못했다.
 다. 그 일에 대해 **더는** 묻지 마라./묻지 말자.

(11)의 긍정문에 해당하는 (12)가 부적격한 문장이 되는 것으로 보아 ‘더는’이 부정문에서만 수식어로 쓰이고 긍정문에서는 쓰이지 않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 (12) 가. *나는 그곳에 **더는** 가겠다.
 나. *나는 그분을 **더는** 만났다.
 다. *그 일에 대해 **더는** 물어라/물자.

(12)에서 ‘더는’ 대신에 ‘더’가 수식어로 쓰이면 적격한 문장이 되지만, ‘더는’이 수식어로 쓰여 부적격한 문장이 된 점으로 미루어 ‘더는’은 긍정문은 가려잡지 않고 부정문만 가려잡음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통사적 제약을 일으키는 원인은 ‘는’에 있다. 왜냐하면 (12)에서 ‘는’이 삭제되면 모두 적격한 문장이 되기 때문이다.

‘더는’은 (11)과 같이 부정문만 가려잡는 것이 확실하지만, ‘더는’이 삭제되더라도 문장의 적격성에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문장 구성의 필수 요소는 아니다. 곧 ‘더는’이 수식어로 쓰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정문

이어야 하지만, 부정문을 구성하는 데 필수 요소는 아니다. 또한 (11)에서 ‘더는’이 삭제되면 ‘더는’의 의미만 덜어질 뿐 문장의 의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필수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는’은 부정어 용언 중 ‘아니다’, ‘없다’, ‘모르다’를 가려잡는다. ‘더는’이 부정문만 가려잡기 때문에 (13)에 대립되는 긍정문은 당연히 부정격함 문장이 된다.

- (13) ㄱ. 저분은 **더는** 부자가 **아니다**.
- ㄴ. 너에게 줄 돈이 **더는** **없다**.
- ㄷ. 그 일에 대하여 나는 **더는** **모른다**.

이와 같이 ‘더’에 보조사 ‘는’이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이면서 부정문만 가려잡는 통사적 제약을 나타내는데, 이런 통사적 제약을 일으키는 원인은 ‘는’에 있다.

3. 일부러는

‘① 특별히 일삼아. ② 알면서도 짐짓’의 뜻을 지닌 부사 ‘일부러’는 주로 동사를 수식하며 긍정문이건 부정문이건 가리지 않고 수식어로 쓰일 수 있다.

- (14) ㄱ. 나는 그 친구를 **일부러** 만났다.
- ㄴ. 나는 친구를 **일부러** 만나지 **않**았다.

‘일부러’는 뒤에 놓이는 피수식어를 의미적으로 한정할 뿐이고 문장 구성이나 문법 범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 부사에 해당한다.

(14)에서 ‘일부러’에 보조사 ‘는’이 결합하면 (15)와 같이 긍정문인 ㄱ은 부정격함 문장이 되고 부정문인 ㄴ은 적격함 문장이 된다.

- (15) ㄱ. *나는 그 친구를 **일부러는** 만났다.
- ㄴ. 나는 그 친구를 **일부러는** 만나지 **않**았다.

‘일부러’는 단순 부정문에서는 수식어로 쓰일 수 있지만, 능력 부정문에

서는 수식어로 쓰일 수 없다. 그 까닭은 ‘일부러’의 의미 특성이 능력 부정과는 부조화를 이루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러’는 능력 부정문에서도 수식어로 쓰일 수 있다.

- (16) ㄱ. *나는 그 친구를 **일부러 못** 만나겠다.
ㄴ. 나는 그 친구를 **일부러는 못** 만나겠다.

이와 같이 부정문을 가려잡는 ‘일부러는’은 주로 동사로 이루어진 서술어를 수식하고, 단순 부정문만이 아니라 능력 부정문도 가려잡아 수식어로 쓰일 수 있는 통사적 특성을 지닌다. ‘일부러는’은 청유문과 명령문에서도 수식어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지 말’을 가려잡을 수 있다.

- (17) ㄱ. 이번 일을 **일부러는 하지** 말자.
ㄴ. 이번 일을 **일부러는 하지** 마라.

(17)의 긍정문이 (18)과 같이 부적격한 문장이 되는 것으로 보아 ‘일부러는’이 부정의 청유문과 긍정문을 가려잡음이 확인된다.

- (18) ㄱ. *이번 일을 **일부러는** 하자.
ㄴ. *이번 일을 **일부러는** 해라.

(18)에서 ‘일부러는’이 삭제되면 적격한 문장이 되지만 ‘일부러는’이 수식어로 쓰이면서 부적격한 문장이 되었기 때문에 ‘일부러는’이 부정문을 가려잡는 제약을 일으키는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일부러는’은 부정문을 가려잡는 통사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이 증명된다. ‘일부러는’이 수식어로 쓰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정문이어야 하지만, 삭제되더라도 ‘일부러는’의 의미만 떨어질 뿐 문장의 적격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문장 구성의 필수 요소는 아니다.

4. 다는¹³⁾

부사 '다'는 ① 남거나 빠짐없이 모두. ② 어떤 상황이나 동작이 완료된 상태에 이르렀음을 나타내는 말. ③ 뜻밖의 일에 비꼬거나 놀람, 감탄을 나타내는 말. ④ 실현될 수 없는 앞일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반어적으로 나타내는 말'의 뜻을 지닌다.

- (19) ㄱ. 회원들이 **다**① 왔다.
ㄴ. 목적지에 **다**② 왔다.
ㄷ. 세상에 별사람 **다**③ 보겠다.
ㄹ. 비가 오니 소풍은 **다**④ 갔다.

(19)에서 ㄱ과 ㄴ의 '다'는 피수식어를 의미적으로 한정할 뿐이고 문장 구성이나 문법 범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 부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다'는 긍정문이면 부정문이건 가리지 않고 수식어로 쓰일 수 있다. '다'의 뜻 ①-④ 가운데 보조사 '는'이 결합될 수 있는 것은 ①과 ②이다. ③과 ④의 뜻인 경우에는 '는'이 결합될 수 없다. ①과 ②의 뜻일지라도 긍정문인 경우에는 '다'는 수식어로 쓰이면 (20)과 같이 부적격한 문장이 된다.

- (20) ㄱ. *회원들이 **다는** 왔다.
ㄴ. *목적지에 **다는** 왔다.

①과 ②의 뜻인 '다'에 '는'이 결합되어 쓰이더라도 적격한 문장이 되는 것은 (21)과 같이 부정문에서 수식어로 쓰일 때로 한정된다.

- (21) ㄱ. 회원들이 **다는 안/못** 왔다./오지 **않**았다./오지 **못**했다.
ㄴ. 목적지에 **다는 안/못** 왔다./오지 **않**았다./오지 **못**했다.

부정문에서의 '다'는'은 의향법의 종류에 관계없이 수식어로 쓰이더라도 모두 적격한 문장이 된다.

13) '다'는 부사만이 아니라 다음 보기와 같이 ① 남거나 빠짐없는 모든 것. ② 더할 나위 없는 최상의 것'의 뜻을 지닌 명사가 있다.
①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다**가 아니다.
② 인생에서 돈이 **다**가 아니다.

- (22) ㄱ. 회원들이 다는 안/못 왔다?
 ㄴ. 과자를 다는 먹지 말자.
 ㄷ. 과자를 다는 먹지 마라.

이와 같이 ‘다’는 부정문에서 꾸밈말로 쓰이기 때문에 부정문을 가려잡는 통사 부사에 해당한다. ‘다’는 부정과 합쳐져 ‘다’가 ①의 뜻일 때에는 ‘일부’의 뜻으로 해석되고, ②의 뜻일 때에는 ‘거의’의 뜻으로 해석된다.

- (23) ㄱ. 회원들이 다는 안/못 왔다.
 → 회원들이 일부 왔다.
 ㄴ. 목적지에 다는 안/못 왔다.
 → 목적지에 거의 왔다.

곧 (23)에서와 같이 [①다+부정]이 ‘일부’와 같은 뜻을 나타내고, [②다+부정]이 ‘거의’와 같은 뜻을 나타낸다.

(22)와 (23)에서 ‘다’는 이 비록 수식어이지만, 문장 구성에서 삭제될 수 없다. ‘다’는 수식어로 쓰여 내용상으로 부분 긍정을 나타내는데, ‘다’는 이 삭제되면 부정을 나타내게 되어 ‘다’는 의 의미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삭제 전과 후의 의미가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다’는 문장 구성의 필수 요소이다.

5. 그냥은

① 더 이상의 변화 없이 그대로. ② 아무런 대가나 조건 없이. ③ 그대로 줄곧의 뜻을 지닌 ‘그냥은 ①과 ②인 경우에는 긍정문이나 부정문에서 수식어로 두루 쓰일 수 있어 부정문만 가려잡는 부사가 아니다. ①의 뜻인 ‘그냥은 (24)와 같이 긍정문이건 부정문이건 가리지 않고 수식어로 쓰인다.

- (24) ㄱ. 그 자리에 그냥 두십시오.
 ㄴ. 그 자리에 그냥 두지 마십시오.

곧 ‘그냥은 뒤에 놓이는 피수식어를 의미적으로 한정할 뿐이고 문장 구성이나

문법 범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 부사에 해당한다.

(24)에서 ‘그냥에 보조사 ‘는’이 결합되면 (25)와 같이 긍정문인 ㄱ은 부적격한 문장이 되고 부정문인 ㄴ은 적절한 문장이 된다.

- (25) ㄱ. *그 자리에 그냥은 두십시오.
ㄴ. 그 자리에 그냥은 두지 마십시오.

‘그냥에 ‘은’이 결합되면서 적격했던 긍정문에서 부적격한 문장이 된 것으로 보아 ‘그냥은’은 긍정문이건 부정문이건 가리지 않던 ‘그냥’과 달리 부정문만 가려잡는 통사적 특성을 지닌다. 곧 ‘그냥은’은 단지 ‘그냥’과 ‘은’의 용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문을 가려잡는 새로운 용법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부정문만 가려잡는 역할은 ‘은’이 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냥은’에서 ‘은’이 삭제되면 ‘그냥’은 본래의 용법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곧 ‘은’과 결합하여 부정문을 가려잡는 용법으로 바뀌기 때문에 부정문을 가려잡는 새로운 용법으로 바뀌게 하는 요인을 ‘은’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①의 ‘그냥은’은 단순 부정문이나 능력 부정문을 가리지 않고 수식어로 쓰이며, 동사인 서술어를 꾸미는 경우에 의향법에 제약이 없다. 청유문과 명령문인 경우에는 ‘-지 말’을 가려잡는다.

- (26) ㄱ. 이 과일은 그냥은 안/못 먹는다.
ㄴ. 이 과일은 그냥은 먹지 말자./먹지 마라.

②의 ‘그냥’도 긍정문이나 부정문에서 수식어로 두루 쓰일 수 있어 부정문만 가려잡는 부사가 아니다.

- (27) ㄱ. 이 책을 그냥 주어라.
ㄴ. 이 책을 그냥 주지 마라.

(27)에서 ‘그냥’에 보조사 ‘는’이 결합하면 (28)과 같이 긍정문인 ㄱ은 부적격한 문장이 되고 부정문인 ㄴ은 적절한 문장이 된다.

- (28) ㄱ. *이 책을 그냥은 주어라.
ㄴ. 이 책을 그냥은 주지 마라.

②의 ‘그냥’도 단순 부정문이나 능력 부정문을 가리지 않고 수식어로 쓰이며, 동사인 서술어를 꾸미는 경우에 의향법에 제약이 없다. 청유문과 명령문인 경우에는 ‘-지 말-’을 가려잡는다.

- (29) ㄱ. 이 책을 그냥은 안/못 준다.
ㄴ. 이 책을 그냥은 주지 말자./주지 마라.

③의 ‘그냥’은 주로 긍정문에서 수식어로 쓰이며, 부정문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다. 따라서 ③의 ‘그냥’에는 부정문을 가려잡게 하는 ‘은’이 결합되어 쓰이지 않는다.

- (30) ㄱ. 비가 사흘째 그냥 오고 있다.
ㄴ. *비가 사흘째 그냥은 오고 있지 않다.

긍정문인 (30ㄱ)에서는 ‘그냥’이 ‘그대로 줄곧’의 뜻을 지니기 때문에 뒤에 ‘은’이 결합된 (30ㄴ)이 부적격한 문장이 되었다.

이와 같이 ①과 ②의 뜻을 지닌 ‘그냥’이 수식어로 쓰인 문장에서 ‘그냥’에 ‘은’이 결합되면 부정문에서는 적격한 문장이 되지만 긍정문에서는 부적격한 문장이 되어 ‘그냥은’은 부정문을 가려잡는 통사적 특성을 지닌다. ③의 뜻을 지닌 ‘그냥’은 긍정문에서만 수식어로 쓰이기 때문에 ‘그대로 줄곧’의 뜻을 지닌 ‘그냥’에는 ‘은’이 결합되지 않는다.

Ⅲ. 주로 부정문을 가려잡는 ‘는’ 결합 부사어

본디 통사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 부사로, 긍정문이나 부정문에서 수식어로 두루 쓰일 수 있어 부정문만 가려잡지는 않지만 보조사 ‘는’이 결합되면서 주로 부정문을 가려잡아 통사적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다. 이에 해당하는 부사어로 ‘자주는’, ‘많이는’, ‘멀리는’을 들고, 이들 부사어의 통사적 특성을 살펴본다.

1. 자주는

‘같은 일을 잇달아 잦게’의 뜻을 지닌 ‘자주’는 주로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로, 긍정이나 부정의 문장에서 수식어로 두루 쓰일 수 있어 부정문만을 가려잡는 부사는 아니다.

- (31) ㄱ. 그는 등산을 자주 다닌다.
 ㄴ. 그는 등산을 자주 안/못 다닌다./다니지 않는다./다니지 못한다.

‘자주’는 피수식어를 의미적으로 한정할 뿐이고 문장 구성이나 문법 범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 부사에 해당한다.

‘자주’에 보조사 ‘는’이 결합되어 수식어로 쓰이면, (32)와 같이 부정문에서는 적격한 문장으로 자연스럽지만, 긍정문에서는 부적격한 문장이 아니지만 불완전한 문장이 된다.

- (32) ㄱ. #그는 등산을 자주는 다닌다.
 ㄴ. 그는 등산을 자주는 안/못 다닌다./다니지 않는다./다니지 못한다.

(32)에서 ㄱ은 불완전한 문장이지만 ㄱ이 선행절이 되고 뒤에 부정의 후행절이 놓이거나 ㄱ이 후행절이 되고 앞에 부정의 선행절이 놓이면 완전한 문장이 된다.

- (33) ㄱ. 그는 등산을 자주는 다니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ㄴ. 그는 등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자주는 다닌다.

곧 부정문에서의 ‘자주는’은 수식어로 쓰이더라도 적격한 문장이 되고, 긍정문에서 ‘자주는’이 수식어로 쓰이면 부적격하지는 않지만 불완전한 문장이 되어, (33)과 같이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완전한 문장이 됨을 알 수 있다.

긍정문에서의 ‘자주는’은 (32ㄱ)과 같은 서술문뿐만 아니라 의문문, 청유문, 명령문에서도 불완전한 문장이 된다.

- (34) ㄱ. #그는 등산을 자주는 다니니?

- ㄴ. #등산을 **자주는** 다니자.
- ㄷ. #등산을 **자주는** 다녀라.

‘자주’와 맞섬 관계를 이루는 ‘가끔’에 보조사 ‘는’이 결합되면 의향법의 종류에 관계없이 긍정문에서 수식어로 쓰이더라도 모두 적절한 문장이 되는 것과 대조된다.

- (35) ㄱ. 그는 등산을 **가끔은** 다닌다.
 ㄴ. 그는 등산을 **가끔은** 다니니?
 ㄷ. 등산을 **가끔은** 다니자.
 ㄹ. 등산을 **가끔은** 다녀라.

곧 ‘자주는’을 ‘가끔은’과 견주어보면, ‘가끔은’과 달리 ‘자주는’은 긍정문에서 수식어로 쓰이면 불완전한 문장이 됨을 알 수 있다.

부정문에서의 ‘자주는’은 의향법의 종류에 관계없이 수식어로 쓰이더라도 모두 적절한 문장이 된다.

- (36) ㄱ. 그는 등산을 **자주는 안/못** 다니니?
 ㄴ. 등산을 **자주는** 다니지 말자.
 ㄷ. 등산을 **자주는** 다니지 마라.

이와 같이 ‘자주는’은 주로 부정문에서 수식어로 쓰이기 때문에 부정문을 가려잡는 통사 부사에 해당한다. ‘자주는’은 부정과 합쳐져 ‘가끔’의 뜻으로 해석된다.

- (37) ㄱ. 그는 등산을 **자주는 안/못** 다닌다.
 → 그는 등산을 **가끔** 다닌다.
 ㄴ. 몸이 **자주는** 아프지 않다.
 → 몸이 **가끔** 아프다.

(37)에서와 같이 [자주는+부정]은 ‘가끔’과 같은 뜻을 나타낸다. (37)에서 ‘자주는’이 삭제되면 내용상으로도 부정문이 되기 때문에 삭제 전과 의미가 달라진다. 곧 ‘자주는’이 삭제되면 ‘자주는’의 의미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주는’이 수식어로 쓰인 문장에서 ‘자주는’은 삭제될

수 없는 필수 요소이다.

2. 많이는

‘수효나 분량, 정도 따위가 일정한 기준보다 넘게’의 뜻을 지닌 부사 ‘많이’는 동사와 형용사를 수식하는 어찌씨로, (38)과 같이 긍정문이나 부정문에서 수식어로 두루 쓰일 수 있어 부정문만 가려잡는 부사가 아니다. 따라서 ‘많이’는 피수식어를 의미적으로 한정할 뿐이고 문장 구성이나 문법 범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38) ㄱ. 비가 **많이** 왔다.
 ㄴ. 비가 **많이 안** 왔다/오지 않았다.

‘많이’에 보조사 ‘는’이 결합되어 수식어로 쓰이면, (39ㄴ)과 같이 부정문에서는 적격한 문장으로 자연스럽다. 그러나 (39ㄱ)과 같은 긍정문에서는 부적격한 문장은 아니지만 의미적으로 불완전한 문장이 된다.

- (39) ㄱ. #손님이 **많이는** 왔다.
 ㄴ. 손님 **많이는 안** 왔다/오지 않았다.

(39)에서 ㄱ은 불완전한 문장이 되지만 ㄱ이 선행절이 되고, 뒤에 부정의 후행절이 놓이거나, ㄱ이 후행절이 되고 앞에 부정의 선행절이 놓이면 의미적으로도 완전한 문장이 된다.

- (40) ㄱ. 손님이 **많이는** 왔지만 기다리던 사람은 **안** 왔다.
 ㄴ. 기다리던 사람은 **안** 왔지만 손님이 **많이는** 왔다.

이와 같이 부정문에서 ‘많이는’이 수식어로 쓰이면 적격한 문장이 된다. 긍정문에서 ‘많이는’이 수식어로 쓰이면 부적격하지는 않으나 의미적으로 불완전한 문장이 되지만 (40)과 같이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긍정문에 쓰이더라도 완전한 문장이 됨을 알 수 있다.

‘많이’와 대립적인 ‘조금’은 ‘은’이 결합하더라도 부정문이면 긍정문이면 가리지 않고 적격하게 쓰이는 점에서 대조를 이룬다.¹⁴⁾ 이처럼 ‘많이는’과

'조금은'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많이'와 '조금'의 의미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¹⁵⁾

- (41) ㄱ. 철수가 떡을 **조금은** 먹는다.
 ㄴ. 철수가 떡을 **조금은** 안 먹는다./먹지 않는다.

곧 '많이는'의 쓰임을 '조금은'의 쓰임과 견주어보면, '조금은'과 달리 '많이는'은 긍정문에서 수식어로 쓰이면 불완전한 문장이 됨을 알 수 있다. '많이는'이 주로 부정문에서만 수식어로 쓰이는 특성을 통해, '많이는'은 단지 '많이'와 '는'의 용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문을 가려잡는 새로운 용법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의미에서도 각각의 의미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과 합쳐 부분 긍정의 의미를 나타낸다.

- (42) ㄱ. 비가 **많이는** 오지 않았다.
 ㄴ. 요즘 **많이는** 안 바쁘다.

(42)는 표면적으로는 부정문이지만, 내면적으로는 (43)과 같이 부분 긍정의 의미를 나타낸다.

- (43) ㄱ. [비가 **어느 정도** 왔다.](**비가 왔는데** 많이 온 것은 아니다.)
 ㄴ. [요즘 **어느 정도** 바쁘다.](**요즘 바쁘는데** 많이 바쁜 것은 아니다.)

(42)에서 '많이는'이 삭제되면 부정문이 되지만 '많이는'이 수식어로 쓰이면서 (43)과 같이 부분 긍정의 의미를 지니는데, 이 역할을 '많이는'이 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42)에서 '많이는'은 삭제되면 삭제 전과 의미와 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문장 구성에서 삭제될 수 없는 필수 요소이다.

주로 부정문을 가려잡는 '많이는'은 형용사만이 아니라 동사로 이루어진 서술어를 수식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부정문과 능력 부정문을 가리지

14) '조금'에는 '도'가 결합되면 부정문을 가려잡는다. 이에 관한 논의는 한길, 앞의 논문(2015b), 147-171쪽.

15) 보조사 '도'와의 결합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조금도'는 '전혀'의 뜻으로 부정문에서 수식어로 쓰이지만 '많이도'는 다른 의미로 바뀌지 않고 '많이'와 '도'의 의미와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다.

않고 가려잡을 수 있다. 청유문과 명령문에서도 수식어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지 말’을 가려잡을 수 있다.

- (44) ㄱ. 형이 **많이는 안** 늙었다./**늙지** 않았다.
 ㄴ. 청중들이 **많이는 못** 모였다./**모이지** 못했다.
 ㄷ. 고기를 **많이는** 먹지 말자./**먹지** 마라.

(44)와 같이 ‘많이는’은 부정문을 가려잡되, 부정문에 관한 별도의 제약이 따르지 않는다. ‘많이는’은 부정용언 중에 ‘없다’, ‘모르다’는 가려잡지만 ‘아니다’는 가려잡지 않는다.

- (45) ㄱ. 친구가 **많이는** 없다.
 ㄴ. 나는 영어를 **많이는** **모른다**.

이와 같이 ‘많이’와 ‘는’이 결합된 ‘많이는’은 부사어로 쓰이면서 주로 부정문을 가려잡아 수식어로 쓰이며, 표면적으로는 부정문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일부 긍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특성을 지닌다.

3. 멀리는

‘거리가 꽤 많이 떨어지게. 시간적인 간격이 아주 길게’의 뜻을 지닌 ‘멀리’는 주로 동사를 수식하는 어찌씨로, (46)과 같이 긍정문이나 부정문에서 수식어로 두루 쓰일 수 있어 부정문만 가려잡는 부사가 아니다.

- (46) ㄱ. 철수가 **멀리** 떠난다.
 ㄴ. 철수가 **멀리 안** 떠난다./**떠나지** 않는다.

곧 ‘멀리’는 뒤에 놓이는 피수식어를 의미적으로 한정할 뿐이고 문장 구성이나 문법 범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 부사이다.

‘멀리에 보조사 ‘는’이 결합되어 부사어로 쓰이면, (47)과 같이 부정문에서는 적격한 문장으로 자연스러우나, 긍정문에서는 부적격한 문장은 아니지만 의미적으로 불완전한 문장이 된다.

- (47) ㄱ. #철수가 **떨리는** 떠난다.
 ㄴ. 철수가 **떨리는 안** 떠난다./떠나지 않는다.

(47)에서 ‘떨리는’이 부사어로 쓰인 부정문 ㄴ은 적격한 문장이 되었으나, 긍정문 ㄱ은 부적격한 문장은 아니지만 의미적으로 불완전한 문장이 되었다. ㄱ이 완전한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 (48)과 같이 ㄱ이 선행절이나 후행절이 되고, 앞자리나 뒷자리에 선행절이나 후행절이 놓여야 한다.

- (48) ㄱ. 철수가 **떨리는** 떠났지만 곧 돌아올 것이다.
 ㄴ. 철수가 가까이는 떠나지 않지만 **떨리는** 떠난다.

‘떨리’에 ‘는’이 결합되어 쓰이면서 결합 전과 용법에서 차이를 보이는 원인은 보조사 ‘는’에 있다. ‘떨리’에 ‘는’이 결합되면서 부정문을 가려잡는 용법으로 달라졌기 때문이다. ‘떨리는’은 한 몸처럼 작용하여 주로 부정문을 가려잡는 통사적 특성을 지닌다. ‘떨리는’이 주로 부정문에서만 수식어로 쓰이는 특성을 통해 ‘떨리는’은 단지 ‘떨리’와 ‘는’의 용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문을 가려잡는 새로운 용법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의미에서도 ‘떨리’와 ‘는’이 각각의 의미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과 합쳐져 부분 긍정의 의미를 나타낸다.

- (49) ㄱ. 서울에서 인천이 **떨리는 안** 떨어졌다.
 ㄴ. 철수가 아직 **떨리는 못** 갔다.

(49)는 표면적으로는 부정문이지만, 내면적으로는 (50)과 같이 부분 긍정의 의미를 나타낸다.

- (50) ㄱ. [서울에서 인천이 **어느 정도** 떨어졌다.](서울에서 인천이 떨어졌지만 꽤 많이 떨어진 것은 아니다.)
 ㄴ. [철수가 **어느 정도** 갔다.](철수가 갔지만 꽤 많이 간 것은 아니다.)

‘떨리는’이 수식어로 쓰인 (49)에서 ‘떨리는’이 삭제되더라도 문장의 적격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의미상 ‘떨리는’의 의미만 덜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장의 의미가 달라진다. 곧 (49)는 (50)과 같이 부분 긍정문으로 해석되지만 ‘떨리는’이 삭제되면 부정문으로만 해석되기 때문에

‘멀리는’은 문장 구성의 필수 요소이다.

주로 부정문을 가려잡는 ‘멀리는’은 주로 동사로 이루어진 서술어를 수식하기 때문에 단순 부정문과 능력 부정문을 가리지 않고 가려잡을 수 있다. 청유문과 명령문에서도 수식어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지 말’을 가려잡을 수 있다.

- (51) ㄱ. **멀리는 안** 간다./**가지 않**는다
 ㄴ. **멀리는 못** 간다./**가지 못**한다.
 ㄷ. 너무 **멀리는 가지 말**자./**가지 마**라.

이와 같이 ‘멀리’에 ‘는’이 결합된 ‘멀리는’은 앞에서 살핀 ‘많이는’과 마찬가지로 문장에서 부사어로 쓰이면서 주로 부정문을 가려잡아 수식어로 쓰이며, 표면적으로는 부정문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부분 긍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특성을 지닌다.

IV. 맺음말

긍정문이나 부정문을 가리지 않고 수식어로 쓰일 수 있는 일부 부사에 보조사 ‘는’이 결합되어 수식어로 쓰이면서 부정문만 가려잡거나 주로 부정문을 가려잡는 부사어를 선정하여 이들의 통사적 특성을 규명하였다.

부정문만 가려잡는 ‘는’ 결합형 부사어로는 ‘다시는’과 ‘더는’, ‘일부러는’, ‘다는’, ‘그냥은’이 있고, 부정문을 주로 가려잡는 것으로는 ‘자주는’, ‘많이는’, ‘멀리는’ 등이 있다. 이들은 단지 해당 부사의 기능에 ‘는’이 결합된 것이 아니라 합쳐서 부정문만 가려잡는 새로운 통사적 특성과 의미적 특성을 지니게 되었다.

‘는’ 결합형으로, ‘뒤에 더는. 이후에 결코’를 뜻하는 ‘다시는’과 ‘이 이상 결코’를 뜻하는 ‘더는’은 부사 ‘다시’와 ‘더’에 보조사 ‘는’이 덧붙여 이루어진 부사어로, 단순 부정문이나 능력 부정문을 가려잡는 부사어에 해당한다. 부정어 용언 중 ‘아니다’, ‘없다’, ‘모르다’를 가려잡는다. 이들 부사어도 부정문만 가려잡지만, 이들 부사어가 수식어로 쓰인 문장에서 삭제되더라도 의미만 떨어질 뿐 문장의 적격성에서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문장 구성의 필수 요소는 아니다. 곧 이들 부사어가 수식어로 쓰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정문이어야 하지만, 부정문을 구성하는 데 필수 요소는 아니다. 이들 부사어는 청유문과 명령문에서 수식어로 쓰이는 경우에는 ‘-지 말’을 가려잡는다.

① 더 이상의 변화 없이 그대로. ② 아무런 대가나 조건 없이. ③ 그대로 줄곧의 뜻 중에서 ①과 ②의 ‘그냥은’과 ‘① 특별히 일삼아. ② 알면서도 짐짓’의 뜻을 지닌 ‘일부러는’은 단순 부정문이나 능력 부정문을 가리지 않고 수식어로 쓰이며, 동사인 서술어를 꾸미는 경우에 의향법에 제약이 없어 청유문과 명령문인 경우에는 ‘-지 말’을 가려잡는다.

‘다는’은 부정과 합쳐져 ‘다가 ‘남거나 빠짐없이 모두’의 뜻일 때에는 ‘일부’의 뜻으로 해석되고, ‘어떤 상황이나 동작이 완료된 상태에 이르렀음을 나타내는 말’의 뜻일 때에는 ‘거의’의 뜻으로 해석된다. ‘다는’이 삭제되면 부정을 나타내게 되어 ‘다는’의 의미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삭제 전과 후의 의미가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다는’은 문장 구성의 필수 요소이다. ‘다는’이 청유문과 명령문에서 수식어로 쓰이는 경우에 ‘-지 말’을 가려잡는다.

주로 부정문을 가려잡는 ‘자주는’은 부정과 합쳐져 ‘가끔’의 뜻으로 해석된다. ‘자주는’이 수식어로 쓰임으로써 내용상으로 부분 긍정을 나타내는데, ‘자주는’이 삭제되면 부정을 나타내게 되어 ‘자주는’의 의미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삭제 전과 후의 의미가 크게 달라지므로 문장 구성의 필수 요소이다. ‘자주는’이 청유문과 명령문에서 수식어로 쓰이는 경우에 ‘-지 말’을 가려잡는다.

‘많이는’과 ‘멀리는’은 주로 부정문을 가려잡아 수식어로 쓰이며, 표면적으로는 부정문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일부 긍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특성을 지닌다. ‘많이는’과 ‘멀리는’은 수식어로 쓰인 문장에서 삭제되면 삭제 전과 의미와 용법이 달라지므로 문장 구성의 필수 요소이다. 이들 부사어가 청유문과 명령문에서 수식어로 쓰이면 ‘-지 말’을 가려잡는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편,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9.
- 국립국어연구원 편,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2001.
- 금성관,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1991.
- 김석득, 『우리말 형태론』. 탑출판사, 1992.
- 남기심, 『현대국어 통사론』. 태학사, 2001.
- 박선자, 『한국어 어찌말의 통어의미론』. 세종출판사, 1996.
- 서정수, 『국어문법』. 뿌리깊은나무, 1994.
- _____, 『한국어의 부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 손남익, 『국어 부사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1995.
- 신기철·신용철 편, 『새우리말큰사전』. 삼성출판사, 1977.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원 편, 『연세한국어사전』. 두산동아, 2001.
- 이희승,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1982.
- 임유중, 『한국어 부사 연구』. 한국문화사, 1999.
- 최현배, 『우리말본』. 정음사, 1971.
- 한글학회 편, 『우리말큰사전』. 어문각, 1992.
- 한길, 『현대 우리말의 형태론』. 역락, 2006.
- _____, 『우리말 어찌씨의 짜임새 연구』. 역락, 2014.
- _____, 『우리말의 통사 어찌씨 연구』. 역락, 2016.

2. 논문

- 김경훈, 『현대 국어 부사어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김영희, 「셈술말로서의 정도부사」. 『한글』 190, 한글학회, 1985, 133-161쪽.
- 김택구, 「우리말 부사어의 통어 기능」. 『두메 박지홍 선생 회갑기념논문집』, 1984, 63-86쪽.
- 박선자, 『한국어 어찌말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3.
- 서상규, 「부사의 통사적 기능과 부정의 해석」. 『한글』 186, 한글학회, 1984, 73-113쪽.
- 손남익, 「국어 부사의 수식 대상」. 『한국어학』 제4집, 한국어학회, 1996, 47-66쪽.
- _____, 「서법부사와 호응어」. 『인문학보』 제23집, 강릉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7, 187-207쪽.
- _____, 「국어 상정부사어와 공기어 제약」. 『한국어 의미학』 3, 한국어 의미학회, 1998, 119-134쪽.

- _____, 「국어 부사어와 공기어 제약」. 『한국어학』 제9집, 한국어학회, 1999, 157-179쪽.
- 한길, 「정도어찌씨에 관한 의미론적 연구」. 『새국어교육』 37·38, 한국국어교육학회, 1983, 372-391쪽.
- _____, 「정도부사 ‘훨씬’, ‘가장’, ‘더/덜’의 용법」. 『인문과학연구』 제35집,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184-205쪽.
- _____, 「보충어를 요구하는 통사 부사의 용법」. 『인문과학연구』 제39집,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224-249쪽.
- _____, 「문장 구성을 제약하는 통사 부사의 용법」. 『국어학과 국어교육학』, 채륜, 2015a. 205-232쪽.
- _____, 「부정문을 가려잡는 ‘도’ 결합 부사어 연구」. 『인문과학연구』 제46집,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b, 147-171쪽.
- _____, 「부정문을 가려잡는 필수 부사의 통사적 특성」. 『정신문화연구』 제143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6, 153-178쪽.
- 허용, 『20세기 우리말의 통어론』. 샘문화사, 1999.

국 문 초 록

보조사 ‘는’은 일부 부사에 결합되어 문장에서 부사어로 쓰이면서 부정문을 가려잡는 기능을 한다. 이 글에서는 ‘는’이 결합되기 전의 부사는 긍정문과 부정문에서 수식어로 쓰이지만 ‘는’이 결합되면서 부정문에서만 수식어로 쓰이는 것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부정문만 가려잡는 ‘는’ 결합형 부사어로는 ‘다시는’과 ‘더는’, ‘일부러는’, ‘다는’, ‘그냥은’이 있고, 부정문을 주로 가려잡는 것으로는 ‘자주는’, ‘많이 는’, ‘멀리는’ 등이 있다. 이들은 단지 해당 부사의 기능에 ‘는’이 결합된 것이 아니라 합쳐서 부정문만 가려잡는 새로운 통사적 특성과 의미적 기능을 지닌다.

‘는’ 결합형 ‘다시는’, ‘더는’, ‘그냥은’, ‘일부러는’은 단순 부정문이나 능력 부정문을 가리지 않고 수식어로 쓰이는 부사어에 해당한다. 이들 부사어가 수식어로 쓰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정문이어야 하지만, 부정문을 구성하는 데 필수 요소는 아니다. ‘다는’은 삭제됨으로써 삭제 전과 후의 의미가 크게 달라지므로 문장 구성의 필수 요소이다.

‘자주는’과 ‘많이 는’, ‘멀리는’은 주로 부정문을 가려잡아 수식어로 쓰이며, 표면적으로는 부정문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일부 긍정의 의미를 나타내게 하는 특성을 지닌다. 문장에서 이들 부사어가 삭제되면 삭제 전과 의미와 용법이 달라지므로 문장 구성의 필수 요소이다.

투고일 2017. 3. 16.

심사일 2017. 4. 3.

게재 확정일 2017. 5. 24.

주제어(keyword) 부사(adverb), 부사어(adverbial), 문법 범주(grammatical category), 부정법(negation), 부정문(negative sentence), 보조조사(auxiliary particle)

Abstracts

A Study on the Adverbials Attached 'Neun' to Select Negative Sentences

Han, Kil

Some adverbials have an influence on the grammatical category. The adverbials to influence on negation are used as modifier in negative sentences. Those are syntactic adverbials to select negation. A part of syntactic adverbials to select negation is made by adverbs not to select only negation attached auxiliary particle 'neun'.

Syntactic adverbials attached 'neun' to select negative sentences are 'dasineun', 'deoneun', 'ilbureoneun', 'daneun', 'geunyangneun', 'jajuneun', 'manhineun' and 'meolineun'. Some syntactic adverbials('dasineun', 'deoneun', 'ilbureoneun', 'daneun' and 'geunyangneun') select only negative sentences. The others('jajuneun', 'manhineun' and 'meolineun') select mainly negative sentences.

Before 'neun' is attached to adverbs('dasi', 'deo', 'ilbureo', 'da', 'geunyang', 'jaju', 'manhi' and 'meoli'), they did not select only negative sentences. But after 'neun' is attached, they are used as modifier in negative sentences and the meanings and usages of them are changed in some degree.

This study is on the syntactic characteristics of adverbials attached 'neun' to select negative sentences in Korean.